

[ 사회 ]

할아버지 선배님... 손자 후배님...

온 동네 '동문 잔치'

구례중앙초교 100주년 기념식

일요일인 지난 28일 오전, 구례군 구례읍 서서천 인근 실내체육관 앞 잔디공원이 시끌벅적하다.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은 구례중앙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러 온 '동문'들이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 등 3대가 같은 중앙초교 동문인 경우도 이 곳에서 그리 특별한 것 없는 일이다.

10월 중순께 발간될 100주년에는 구례 교육의 역사와 함께 한 구례중앙초교 100년의 발자취가 담길 예정이다.

조영훈 위원장은 "100주년 기념식에 즈음해 총동문회가 결성되는 만큼 모교가 다가오는



개교 100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 28일,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구례중앙초교 교정 내 '100주년 기념비' 앞에서 공로상을 받은 장수 동문 부부 정기선·김규채(왼쪽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씨와 10년째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57회 졸업생 동문들이 활짝 웃고 있다.

100년까지도 발전을 거듭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시골학교지만 동문들의 면면은 자랑스러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구례읍 봉남리 구례중앙초교 교정에서 100주년 기념비 제작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개교 당시 10만여명(3만여명)

의 학교 부지를 기증한 고 안기섭 선생과 최광수 동문, 장수 부부 동문 등에 대해 공로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전남에서 올해 개교 100년을 맞는 학교는 광주의 송일중·고와 수피아여중·고, 영광의 법성포초등학교, 영암의 영암초등학교, 화순의 능주초등학교 등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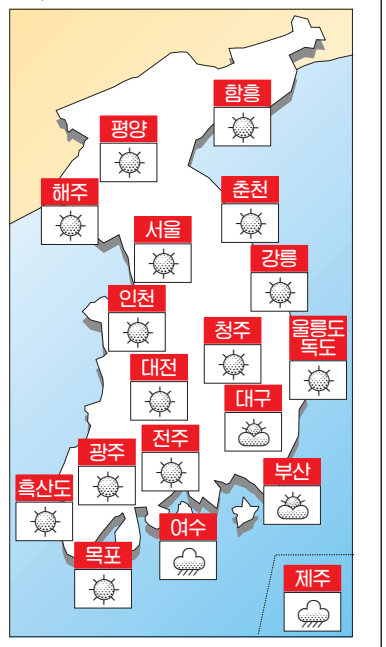
큰 일교차 '감기조심'

장마의 영향을 받아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9월 30일

(음 9월 2일) <전국날씨>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Seoul, Gyeonggi, and Jeonnam.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3.0m

▲해돋이 06:26 ▲해질 18:18 ▲달돋이 07:09 ▲달질 18:2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week of 10/1 to 10/6.



조선대 교수와 학생, 직원, 동문 등 500여명은 29일 오전 교내 조선대학교 설립 기념탑 앞에서 '임시이사 파견 저지 범조선 결의대회'를 열고 교과부의 조선대 임시이사 선임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기가 열나고 아파요" 출동하고 보니 애완견

광주 '부적절한 119 신고' 울들어 5만7천건

"우리 아기가 열이 나고 많이 아파요." 지난달 21일 새벽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119상황실로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 전화가 한 통 들려왔다.

출동명령을 받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해 보니 신고자가 말하는 '아기'는 다른 아기 '애완견'이었다.

이 때문에 신고의 진정성을 구별하는 상황실 대원들은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단순·경미한 신고 전화가 늘고 있는 반면 장난전화가 꾸준히 줄고 있다는 것이다.

신고 접수된 내용들로는 응급 환자도 아니면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병원이송을 요구하는 경우,

맨홀에 빠진 핸드폰이나 반지를 꺼내달라는 경우, 심지어는 야간에 만취자가 차비가 없다며 집까지 태워달라는 경우까지 있다.

아파트 문을 잠그고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차량에 열쇠를 두고 내려 문을 열지 못하고 신고한 경우의 수가 그나마 양반일 정도다.

이 때문에 신고의 진정성을 구별하는 상황실 대원들은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단순·경미한 신고 전화가 늘고 있는 반면 장난전화가 꾸준히 줄고 있다는 것이다.

장난전화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923건에서 673건으로 27%나 감소했다.

약성·상술 119신고자 수심 명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집중관리, 장난전화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신호 접수된 내용들로는 응급 환자도 아니면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병원이송을 요구하는 경우,

맨홀에 빠진 핸드폰이나 반지를 꺼내달라는 경우, 심지어는 야간에 만취자가 차비가 없다며 집까지 태워달라는 경우까지 있다.

아파트 문을 잠그고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차량에 열쇠를 두고 내려 문을 열지 못하고 신고한 경우의 수가 그나마 양반일 정도다.

이 때문에 신고의 진정성을 구별하는 상황실 대원들은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단순·경미한 신고 전화가 늘고 있는 반면 장난전화가 꾸준히 줄고 있다는 것이다.

장난전화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923건에서 673건으로 27%나 감소했다.

약성·상술 119신고자 수심 명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집중관리, 장난전화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전남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5년간 94억원 보상액은 2,700만원에 불과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의 피해 보상 비율은 0.29%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결 의원이 29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실態'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3~2007년) 전국에서 야생동물 때문에 발생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948억8천600원으로 연평균 189억7천7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94억3천100만원의 피해액으로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손실을 입었다.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112억원의 피해를 봤다.

반면 지난 5년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비 지원금액은 피해액 대비 4.03%인 38억3천2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의 5년간 피해 보상액은 2천700만원만으로 피해액 대비 보상 비율은 0.29%에 불과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임시이사 절대 안된다" 조선대 교수·학생 결의대회

교과부가 조선대 법인에 파견할 임시이사 선임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조선대는 29일 결의대회를 열어 교과부의 결정을 기각했다.

30일에는 지난 8월말에 이어 두 번째로 긴급사부 처리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조선대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등 500여명은 이날 오전 교내 조선대학교 교정 기념탑 앞에서 '임시이사 파견 저지 범조선 결의대회'를 열고 "임시이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임시이사 파견이 부정비리를 저질러 학교에서 물러난 구 경영진 등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주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 교과부의 임시이사 파견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대회 후에는 교내 서석숙 3층 대강당에서 제62주년 개교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전호중 총장은 "조선대 개교 62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임시이사 파견의도를 즉각 중지하고, 정이사의 조속한 선임을 촉구한다"며 "법인이 정상화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임시이사를 파견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30일 오전 11시에 조선대 법인은 김용태 전 이사장 등 직전 이사 5명·임용과 산하 중·고교 추정 이사인 등 11개 단계를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조선대 정상화 계획을 심의 중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차기 회의는 10월2일 열릴 예정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Asset Management, featuring a table of investment data and company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Namsong Namsongdang, a traditional Korean restaurant, featuring a table of menu items and prices.